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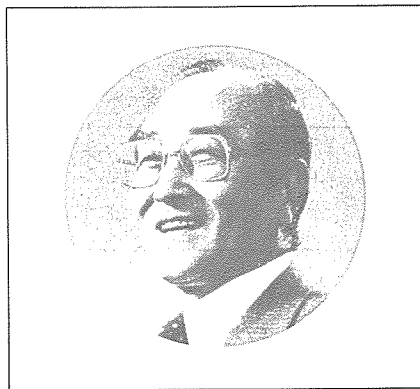
# 「국립自然科學史박물관」設立시급

## 研究費 지원과 就業의 기회 확대돼야

『古生物学은 과거 地質時代에 살았던 생물들의 형태나 생태, 분류, 분포, 진화과정등을 연구함으로써 地球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생물학은 지질학의 한분야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띤 학문으로 생물학적인 측면과 지질학적인 서로 다른 이질적인 학문분야를 체계있게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 고 봅니다』韓國古生物學會 金鳳均회장 (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데는 지구 땅덩어리의 변화상태와 지구상에 살고있는 생물의 변화를 알아야 하므로 고생물학은 지질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필수과목이라고 소개한다.

『고생물에 관한 연구는 석유개발등을 제외하고는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연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國力の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우리 여건으로는 그럴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그만큼 이분야의 발전속도가 늦어질수 밖에 없었지요』金회장은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國力の 뒷받침없이 自力으로 발전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國內의 고생물학 전문인의 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생물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다고 말한다.

고생물 연구분야는 크게 微고생물과 巨고생물로 나눌수 있는데 微化石을 취급하는 微고생물분야는 그크기가 매우 작아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유개발연구등 경제성과 연관이있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



◇金鳳均회장

고 연구대상으로 삼고있으며 특히 超微고생물부분은 그 연구방법에 있어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그리고 巨고생물분야는 육안으로도 감식이 가능한 巨化石이 주 연구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이 석유개발등 경제성과 직결되는 미화석분야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거화석분야의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라고 볼수 있지요』金회장은 미화석에 관한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석유개발이 한창인 1920년대 부터라고 볼때 6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비해 거화석분야는 2 백년의 역사를 갖고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新生國家에서 오랜 역사자료를 구한다는것이 쉬운일이 아니어서 거화석쪽의 연구자가 많지않은 이유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金회장은 우리나라 10개대학의 고생물학교수 가운데 2 할정도를 제외한 모두 교수들이

모두 미화석에 관한 연구를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나가다 보면 점차 학문적 불균형으로 이 분야 발전에 저해요소가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거화석분야에도 관심을 돌려 거화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古生物 研究史를 살펴 보면 1884년 독일인 지질학자 O. C. Gottsche에 의해 「한국에서의 캄브리아層발견 (Auffindung Combrischer Schichten in Korea)」이라는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한국고생물 연구의 효시가 되었는데 金회장은 한국고생물연구의 효시가 외국인에 의해 비롯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이조말에 지질학에 관심을 갖고 외국학자를 초청해서 지질조사를 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볼때 우리 고생물학의 역사를 100년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다.

金회장은 우리나라 고생물 발전과정을 크게 4 단계로 구분, 1 단계는 1925년까지, 2 단계는 1945년 해방되기까지, 3 단계는 60년대초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를 4 단계로 나누어 2 단계까지는 주로 독일인이나 일본인등 외국학자에 의해 한국 고생물 연구가 활기를 띠기시작, 광복후 60년대초까지는 국내의 전문 고생물학자들의 숫적인 부족 뿐만아니라 6.25동란과 같은 혼란기를 맞아 우리나라 고생물학연구가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으나 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첫번째 논문이 발표되면서 고생물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이르러 국내의 고생물학 전문인의 수가 증가되고 이들에 의하여 고생물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 했으며 84년 6월 한국고생물학회가 창립되고 이듬해에는 한국 고생물학회지가 창간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고생물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金박사는 현재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신진 학자들이 전문분야 별로 연구에 착수하고 있고 또 국내외 대학에서 고생물에 관한 연구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생물 연구는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나 아직도 실험기기, 실험실등 연구기자재의 부족은 물론 연구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은 아울러 고생물 전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취업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외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학위를 딴 신진학자들이 연구할 곳이 없어 전전공공한다는 것은 고생물학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로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으므로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기구설립등의 배려로 이들을 수용할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한다.

金회장은 이와함께 일반인들의 古生物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國立自然史 박물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自然史박물관 만큼 과학에 대한 눈을 뜨게하는 좋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科学韓國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자연사 박물관의 설립은 빠른 시일내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金회장은 선진외국은 물론 이웃 일본만해도 웬만한 「시」에 자연사박물관 한개 정도는 갖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과학입국을 자랑하는 나라로써 부끄러운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의 조속한 설치는 물론 적어도 각 도에 자연사박물관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는 일반국민의 과학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權 光 仁 記〉